

‘문향 이정표’ 문학춘추 100호 결실

술한 시련에도 25년간 꾸준히 발행 지역 문인 작품 발표·교류 무대 창간 100호 맞아 23일 축하행사 ‘작고문인 작품세계’ 출판기념회도



문학춘추 100호

광주 전남을 일컬어 예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향(文鄉)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오기 때문이다. 백제시대에 불려진 ‘무등산가’는 무등산에 성을 쌓아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무등산 일대를 중심으로 창작된 가사문학과 시조문학은 남도 문학의 전통과 풍성함을 말해준다.

지역의 근대문학 발자취도 어느 곳에 비해 역사성과 결실이 뚜렷하다. 광산 출신 용아 박용철은 1930년부터 ‘시문학’을 발간했다. 1951년 김현승 시인은 전국 유일의 ‘신문학’을 발간해, 문향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었다.

문향의 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 지역문학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 벌어져 화제다.

다름아닌 광주에서 발행되는 종합문예지 ‘문학춘추’가 창간 100호를 맞은 것.

1992년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지 25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햇수로는 4반세기이며 지령으로는 한 세기가 흘렀다. 말이 100호지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25년 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잡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지금까지 많은 문예지가 창간했지만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간한 사례가 적지 않다.

“문학춘추가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고 순간순간 피곤할 것이다. 그러나 시련 속에 더욱 튼튼한 뿌리로 자리 믿음이 될 것을 다짐하며, 한꺼번에 전부를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우선은, 불꽃같은 화가와 칼날같은 문인을 점목시켜, 한마당 어울림으로 신명나는 판을 펼쳐 보여야겠다.”

당시의 창간사는 지역에서 문학잡지를 끌어오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상했음을 보여준다. 그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문학춘추’가 1992년 창간 이래 통권 100호를 맞았다. 사진은 2016년 91~93회 신인작품상 시상식 모습. <문학춘추 제공>

러나 “예술가의 맘이 깃들고 혼이 숨 쉬는 북자국 하나, 언어 한마디는 부유하는 현대인에게 그리움이 되고 신선한 생명의 총만감과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시대의 수고와 보람을 이어주고, 우리 모두가 사는 땅의 숨결과 연연히 이어가는 생명을 역사 하는 것이다”라며 의지를 굳추 세웠다.

예상대로 문학춘추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정부에서 문학지 창간을 꺼려해 잡지 허가 신청서가 세 차례나 반려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창간은 했으나 이후로는 열악한 광고 사정과 재정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돼 중요한 기로에 놓인 적도 있었다.

발행인을 맡고 있는 박형철 시인은 “마부위점(磨斧爲針)의 자세, 즉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각오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무모할 정도로 힘든 발걸음이 오늘에 이르러 드디어 지령 100호를 발간하였다”며 “지역문단의 명석으로, 지역작가들을 보듬는 문단의 빛으로, 지역문단을 정리하는 사초의 북끝으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문학춘추는 문인들이 작품을 탐구해놓고 발표할 지면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국적인 작가들과의 작품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았다. 전국과 지역작가의 비율을 50대 50의 비율로 지면을 할애했으며 향토문단사 정리 차원에서 특집을 100여 차례 계속해왔다.

지금까지 문학춘추가 추진해온 기획물은 우리 지역의 문학과 문학인을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형 김현승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관기행’, ‘임재 백호 서욱기’, ‘박흥시인 생애 조명’, ‘아동문학가 최상욱 작품세계’ 등의 기획물을

연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단과 관련된 다양한 저서들을 펴냈다. ‘광주전남문학인인명사전’, ‘광주전남문학동인사’, ‘광주문학상 작품집’, ‘광주전남작고시인집’, ‘광주전남작고문인작품세계’ 등은 문학적 자료뿐 아니라 그 자체로 문학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의미 있는 책들이었다.

특히 ‘다형 김현승시인 전국학생백일장’을 4년간 진행해 전국에 다형 김현승을 알리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창간 100호를 맞아 문단 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문호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은 “1에서 100까지 숫자를 헤아리지만 하려해도 숨이 차다”며 “100호를 해온 저력으로 앞으로 또 100호, 500호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원석 광주문인협회 회장은 “백세관 ‘노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뿌리가 깊어졌고 그만큼 수고(樹高)가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축하를 했다.

이번 100호에는 다양한 기획물이 수록됐다. ‘요절한 천재시인 김만옥의 작품과 그의 문학적 삶’, ‘시조시인 조희관의 문학과 인생’, ‘빛고를 전남 문단 이야기’ 등을 비롯해 창간 제100호 기념 특집 초대작가 작품이 실렸다. 또한 ‘해의작가 작품선’ 코너를 마련해 재미동포 문인들의 글도 담겨 있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창간 100호를 기념하는 기념회가 23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서석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원로작고문인 작품세계’ 출판 기념회, 문학춘추신인작품상 시상식과 겸해 열린다. 문의 062-226-181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 유망주들과 전남도립국악단의 협연

22~23일 남도소리올림터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차세대 전통예술인 협연 무대 ‘정춘락’ 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22일 오후 7시, 23일 오후 5시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이번 무대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청소년과 대학(원)생의 협연무대로 꾸며지며, 지난 7월 오디션을 거쳐 14명의 연주자들이 선발됐다.

22일 오후 7시에 펼쳐지는 청소년 협연 무대는 조유진(광주예고 2년)의 김춘과류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최유미(광주예고 2년)의 대금협주곡 ‘비류’, 이선민(진도국악고 3년)의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정아령(광주예고 2년)의 가야금병창 협연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대목’으로 이어진다.

또, 박준용(전주예고 2년)의 생황협주곡 ‘풍향’, 허은준(전남예고 2년)의 살장구 협연 ‘소나기’ 무대도 펼쳐진다.

23일 오후 5시 토요일 공연의 무대로 펼쳐지는 대학(원)생 협연 무대는 최지혜(중앙대 3년)의 25현 가야금협주곡 ‘아랑의 꿈’, 박 훈(목원대 2년)의 ‘김일규류 아쟁산조’, 박정인(전남대 2년)의 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 이주아(이화여대 1년)의 가야금병창 ‘적벽가 중 화룡도 대목’이 연주된다.

22일 청소년 협연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23일 대학(원)생 협연 공연은 일반 1만원, 단체·대학생 7000원, 초·중고생 5000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 문의 061-285-6928.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흑인 수감자의 노래...美 연극 ‘비-사이드’ 내한

23~24일 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ACC 동시대 공연예술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미국 극단 ‘우스터 그룹’의 신작 ‘비-사이드(B-SIDE)〈사진〉’을 무대에 올린다. 23일 오후 7시, 24일 오후 5시 극장 2.

연극 ‘비-사이드(B-SIDE)’는 1960년대 텍사스 주립교도소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종차별과 흑인 수감자들의 고통, 아픔, 생존의 노래다.

민속학자 브루스 잭슨이 녹음해 1965년에 발매된 ‘텍사스 주립 교도소의 흑인 민속음악’ 앨범에는 흑인 수감자들이 그룹을 지어 부르는 흑인 영가와 노동가, 블루스 음악 등이 담겨있다. ‘비-사이드’ 공연에서는 이 같은 음반을 소개하면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런 음악이 표현하는 사회 상황을 전달하게 된다.

우스터그룹은 1975년 뉴욕 소호에서 시작해 43년째 창고극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창고

극장은 한 때 슬럼가였던 소호를 뉴욕 최고의 예술거리로 이끈 도상재생 문화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그룹이다.

이번 공연은 우스터그룹의 첫 내한 무대인 만큼, 가장 최근작을 선보이게 될 뿐 아니라, 1960년대 흑인 음악을 통해 인종차별에 따른 흑인들의 애환을 다룬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연티켓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1899-5566.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고봉의 삶과 사상...22일 전남대 학술대회

고봉(高峯) 기대승(1527~1572)은 조선 유학의 전면에 큰 영향을 미친 유학자다. 퇴계 이황과 서신교환을 통해 펼쳤던 성리논변은 유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봉의 생애와 사상을 매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유교문화체험 사례 발표도 예정돼 있어 유교문화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가 22일(오전 10시30분) 인문대학 1호관 106호(이을호기념강의실)에서 ‘우리 시대의 유학적 삶 그대를 우리처럼’이라는 주제로 2017 고봉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전반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유교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전통과 소통하고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청년선비 유교 문화 체험 발표 대회’라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본격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전문학술 연구자들이 나서 고봉 선생뿐 아니라 월봉서원에 배향된 사암 박순(思庵 朴淳), 눌재 박상(訥齋 朴祥),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등의 사상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봉 기대승 선생의 학문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며, 전남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과 행정기씨문화회 공중중 후원으로 광주 광산구청이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가 주관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청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454,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장성군 장성을 유림리 유휴지인근 보전관리지구 임야 90000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522,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근 린 시 설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미북동마을인근 사찰 토지 1575평 건물 183평 감정가 1,200,000,000 최저가 673,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동구 충장로1가 스포츠웨어매장 지하1층-지상3층건물 토지 32평 건물 97평 감정가 1,330,000,000 최저가 1,330,000,000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유폴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남구 주월동 재석초인근 4층건물 토지 71평 건물 180평 감정가 453,000,000 최저가 453,000,000	▶광산군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공 장	▶광산군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일 반 물 건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